

〈제 721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경총,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 제16대 김봉길 회장 이임, 제17대 양진석 회장 취임
- 제24회 경총 노사협력 대상, '기아 오토랜드 광주' 수상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황종철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박용훈, 엄홍섭, 최상준 광주경총 역대 회장과 회원 230명이 참석했다.

김봉길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3년간 예기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노동계와 협력하여 지역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정부와 지자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3천 여 명의 미취업 청장년층에게 취업을 지원했던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회원 배가 운동으로 정회원과 준회원 등 1,500개사가 넘는 회원 중대를 통해 광주경총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점이 큰 보람이었다'며, 다양한 사업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 주신 회원들과 경총 사무국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임 양진석 제17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해피니스CC·(주)호원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한 김봉길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선대 회장의 훌륭한 업적과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회원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 확충과 우리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원 애로 발굴과 대정부 건의 확대,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사 직무역량 강화,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여 광주경총이 회원에게 꼭 필요한 협회가 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주시, 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I. 광주경충 소식

이·취임식에 앞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와 예·결산 심의가 있었으며, 제17대 회장(양진석 회장) 선임과 명예 회장(김봉길 회장) 추대 의안에 대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또한 2000년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달과 지역산업 평화 추구를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노사협력대상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사업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노사협력유공자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주)현대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구, 광주광역시 시장 표창 기아 오토랜드 광주 상무 김희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금호익스프레스(주) 차장 차상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표창 (주)아이코디 전무 한동철 이상 4명이 수상했다.



<제1591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전근룡(세계인문학연구소 대표)

주제: 삼국지와 손자병법에서 배우는-삶이 묻고 지혜가 답하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지난 2월10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전근룡 세계인문학 연구소 대표를 초청「삼국지와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노하우-삶이 묻고 지혜가 답하다」란 주제로 제159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요즘 세상에서 삶의 다양한 일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해법을 얻기 위해 역사책과 인문 고전에서 그 사례와 해법을 찾는데, 손자병법과 병행해서 삼국지를 읽으면 효과가 좋다. 그 책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 두 명을 꼽으라 한다면은 학자들은 주저 없이 첫 번째는 제갈공명을 꼽고, 또 한 명을 추가한다면 사마 중달이라는 분을 넣어주고 있다.

위 축 오라는 나라가 삼국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통일하겠다고 다투었는데 제갈량(공명)과 사마의(중달) 승부사 결투를 보면서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장수다”라고 한다.

승리가 적의 주관 안에 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은 지지 않는 거다. 경영을 하면서 내가 주관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망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잘되는 것은 적이 상대 회사일 수도 있지만 고객일 수도 있다.

제갈량과 사마의는 특징이 있는데 제갈량은 항상 최고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마의는 항상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다. 제갈공명은 자기 긍정이 높은 사람이고, 사마의는 타인 긍정도가 높다. 나도 뛰어나지만 제갈공명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다. 우리가 한번 자웅을 겨뤄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태도로 제갈공명의 출발점은 항상 성공조건을 따져서 나아가는데, 사마의는 항상 실패의 조건부터 따져봤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둘 다 필요하다. 최고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최적을 추구하는 것을 오늘날 더 많이 깨달아야 한다. 바둑과 장기, 남녀간의 결혼에서도 새겨봐야 한다.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적도 중요한데 우리가 최고만을 배웠던 것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가 될 때는 10~20%밖에 필요하지 않다. 80~90%는 최적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 바탕은 최적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서 가끔 필요할 때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베스트가 된다.



‘23년 기업 산재예방활동 ‘근로자 안전의식’과 ‘위험성평가’에 방점

- 경총,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 결과 발표 -

- 올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61.4%)」와 「위험성평가 체계 활성화(30.4%)」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
- 2023년 산업안전보건 투자계획은 「확대」 또는 「유지」 95.2%
-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 69.6%가 「적정」하다고 전망
 - 다만, 로드맵 추진 시 「예방·지원사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70.0%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내 기업 172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 (① 2023년 핵심 추진활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61.4%)’,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를 답변했다.

※ 그 외 ‘중처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15.8%, ‘인력·조직 및 예산 투자 확대’ 3.5%, ‘스마트 안전보건기술 개발·적용’ 2.9% 순

〈 표. 올해 안전보건 핵심 추진활동 〉

(단위 : %)

구분	응답률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61.4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	30.4
중처법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15.8
인력·조직 및 예산 투자 확대	3.5
스마트 안전보건기술 개발·적용	2.9
직업성 질환 예방 등 보건관리 체계 강화	1.2

※ 중복답변, 비중의 합이 10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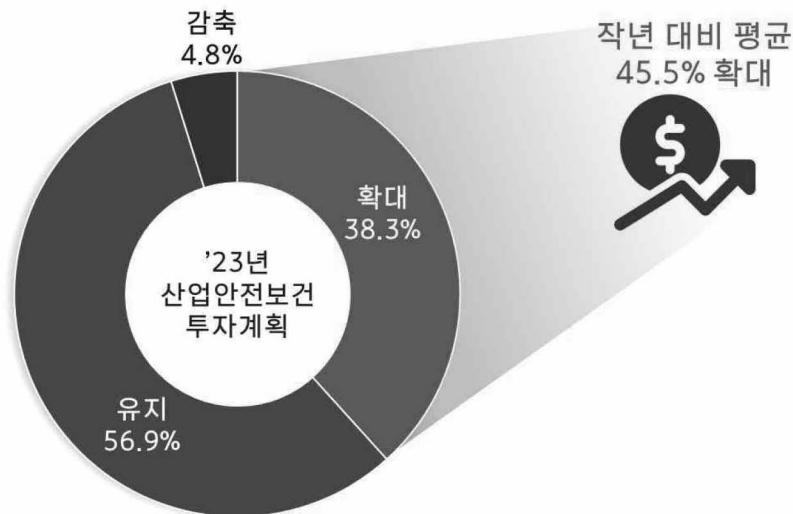
-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에 노력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II. 노동경제동향

- (㉔ 2023년 투자계획) 응답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38.3%)의 경우 투자규모를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023년 산업안전보건 투자규모 〉



○ 기업들이 작년 중처벌 시행에 대비하여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규모를 증대하였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㉕ 정부 로드맵 평가) 정부가 발표('22.11.30)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 응답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로드맵 내용 '적정하다' 69.6%,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 64.6%

- (㉖-1 로드맵 보완사항)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 그 외 '중처벌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기업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 이는 기존 사후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 로드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높은 한편,

II. 노동경제동향

- 로드맵이 진정한 자율예방 정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아닌 ‘산재 예방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④ 2022년 정책 평가) 한편, 작년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의견이 ‘만족’보다 약 2배* 높게 조사되었다.

* ‘불만족’ 37.2%, ‘만족’ 19.2%

-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처벌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이어 “다만, 정부가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이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